



미 증시, 지역은행 부실 대출 확산 우려에 하락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6일(목) 미 증시는 장 초반 AI 반도체 수요 증가 속 호실적을 발표한 TSMC 효과에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연이은 미국 지역은행들의 부실 대출 사례 속 신용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불거진 결과 위험 선호 심리 위축되며 3대지수는 하락 마감 (다우 -0.65%, S&P500 -0.63%, 나스닥 -0.47%)

자이언스뱅크(주가 -13.1%, 3분기 중 부실대출로 약 5,000만 달러 회계상 손실 처리), 웨스턴 얼라이언스뱅크(주가 -10.8%, 센터그룹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 행사 실패) 등 지역은행 부실 대출 우려 속 신용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전일 미 증시 차익 실현 명분으로 작용. 특히, 자동차 부품사 퍼스트브랜즈, 자동차 대출업체 트라이컬러 홀딩스 파산 사태 속 JP모건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최근 잠재적인 신용 리스크를 언급.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은행 재무건전성 우려가 부각된 점이 위험 자산 선호 심리를 위축하는 결과로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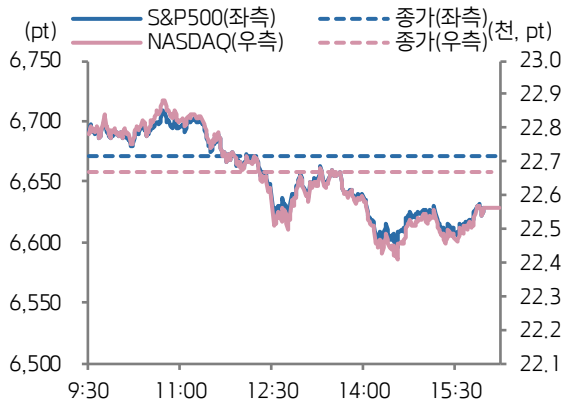
물론, 현재 미국 대형은행의 양호한 재무건전성과 역사적 평균치를 하회하는 미국 하이일드 스프레드(5년 평균 3.69%p, 현재 2.95%p) 등을 고려한다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 다만, 최근 GDP 대비 미 증시 시가총액(버핏 지수)이 200%를 돌파하면서 실물 경기와 자산 가격 간 괴리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태. 이처럼 AI 기술주 랠리 속 미 증시 과열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신용 리스크 관련 잡음이 단기적으로 투자심리를 저해할 수 있는 구간. 실제로, 지역은행 부실사태 우려 속 현재 대표적인 주식시장 심리지수인 Fear and Greed Index도 23pt로 극단적인 공포(Extreme Fear) 레벨대로 진입한 가운데 당분간 관련 노이즈에 대한 변동성 확대 관리가 일부 필요하다고 판단.

물론, 신용 리스크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3분기 AI 반도체 수요 증가 속 역대 최대치 실적을 발표한 TSMC, 향후 두자릿수 매출 성장 예고를 발표한 세일즈 포스 등 AI발 긍정적인 뉴스플로우는 지속되는 흐름. 결국, 향후에도 AI를 중심으로 한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방향성에 주목해야할 필요. 이러한 가운데 10월 남은 일정상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24일 CPI 발표(셋다운으로 인해 지연 발표), 30일 연준 FOMC 등 주요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 최근 셋다운 장기화, 잠재적인 신용 리스크 우려 속 주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의 경계감 유입될 수 있음을 염두해두어야하는 구간.

전일 국내 증시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기대감 및 AI 산업 확장 기대감 속 대형주를 중심으로 재차 코스피 신고가 경신. 특히, 대표적인 관세 협상 관련 피해주인 자동차를 중심으로 상승한 결과 코스피는 급등했으나, 바이오, 로봇 등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된 결과 코스닥은 상승폭 제한 (코스피 +2.49%, 코스닥 +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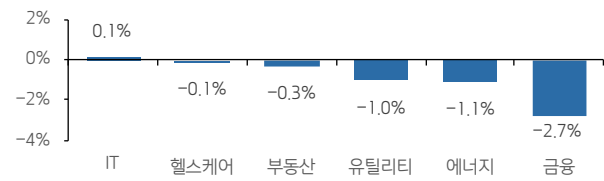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도 최근 랠리 속 단기적으로 과매수권(RSI 77pt)으로 진입한 가운데 신용 리스크 우려 등에 따른 전일 미 증시 조정을 반영하며 약세 출발할 것으로 전망. 다만, 최근 국내 증시는 반도체 중심의 랠리를 넘어서 기존에 소외되었던 자동차, 2차전지 등의 업종까지도 반등세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현상. 외국인 중심의 매수세, 고객예약금 최고치 속 풍부한 유동성 여건 등을 감안한다면, 밸류에이션 부담에서 적은 업종은 상대적으로 하락 민감도가 적을 것으로 판단.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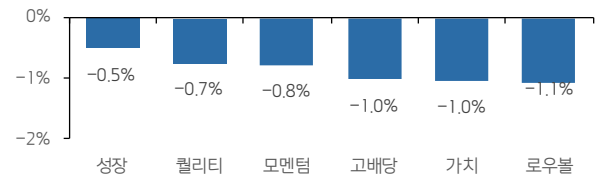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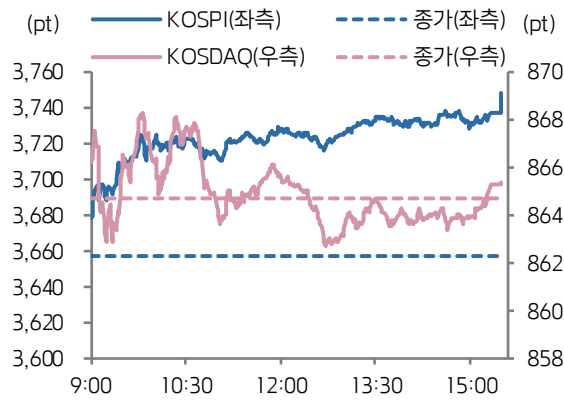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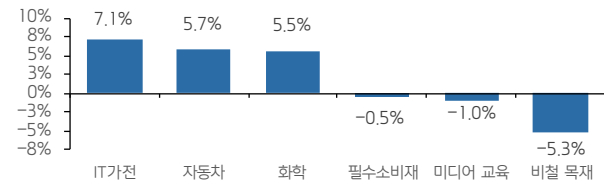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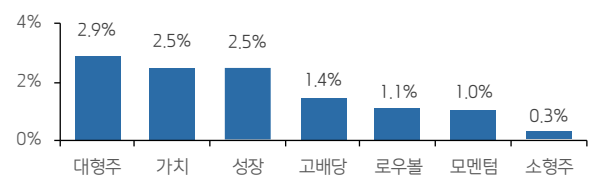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47.45	-0.76%	-0.84%	GM	57.34	-0.8%	+8.54%
마이크로소프트	511.61	-0.35%	+22.05%	일라이릴리	819.38	-0.87%	+6.77%
알파벳	251.46	+0.17%	+33.27%	월마트	106.47	-2.35%	+18.73%
메타	712.07	-0.76%	+21.9%	JP모건	298.54	-2.34%	+27.18%
아마존	214.47	-0.51%	-2.24%	엑손모빌	110.64	-0.87%	+5.7%
테슬라	428.75	-1.47%	+6.17%	세브론	151.71	-0.26%	+8.39%
엔비디아	181.81	+1.1%	+35.42%	제너럴일렉트릭	106.47	-2.3%	+18.7%
브로드컴	354.15	+0.8%	+53.84%	캐터필러	540.96	+1.29%	+50.94%
AMD	234.56	-1.69%	+94.19%	보잉	211.89	-0.99%	+19.71%
마이크론	202.53	+5.52%	+141.34%	넥스트에라	85.05	-0.9%	+21.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3,748.37	+2.49%	+56.22%	USD/KRW	1,417.90	-0.33%	-3.69%
코스피200	524.45	+2.72%	+65.01%	달러 지수	98.36	-0.44%	-9.33%
코스닥	865.41	+0.08%	+27.61%	EUR/USD	1.17	+0.34%	+12.87%
코스닥150	1,436.63	+0.62%	+27.16%	USD/CNH	7.12	-0.07%	-2.9%
S&P500	6,629.07	-0.63%	+12.71%	USD/JPY	150.43	-0.41%	-4.31%
NASDAQ	22,562.54	-0.47%	+16.84%	채권시장			
다우	45,952.24	-0.65%	+8.01%	가격	DTD(bp)	YTD(bp)	
VIX	25.31	+22.63%	+45.88%	국고채 3년	2.580	+5.8bp	-1.5bp
러셀2000	2,467.02	-2.09%	+10.62%	국고채 10년	2.920	+6.1bp	+4.9bp
필라. 반도체	6,800.02	+0.49%	+36.55%	미국 국채 2년	3.424	-7.3bp	-81.7bp
다우 운송	15,655.88	+1.03%	-1.51%	미국 국채 10년	3.975	-5.4bp	-59.5bp
상해종합	3,916.23	+0.1%	+16.84%	미국 국채 30년	4.584	-4.1bp	-19.7bp
항생 H	9,259.46	+0.09%	+27.02%	독일 국채 10년	2.570	-0.1bp	+20.3bp
인도 SENSEX	83,467.66	+1.04%	+6.82%	원자재 시장			
유럽, ETFs				가격	DTD(%)	YTD(%)	
Eurostoxx50	5,652.01	+0.84%	+15.44%	WTI	57.46	-1.39%	-16.12%
MSCI 전세계 지수	985.42	+0.73%	+17.13%	브렌트유	61.06	-1.37%	-18.19%
MSCI DM 지수	4,302.27	+0.57%	+16.03%	금	4,304.60	+2.45%	+55.57%
MSCI EM 지수	1,365.69	+1.99%	+26.98%	은	53.30	+3.73%	+82.26%
MSCI 한국 ETF	87.88	+3.18%	+72.69%	구리	499.90	-0.31%	+24.15%
디지털화폐				BDI	1,997.00	-1.24%	+100.3%
비트코인	107,886.26	-2.96%	+15.12%	옥수수	421.75	+1.2%	-4.96%
이더리움	3,853.04	-2.78%	+15.14%	밀	502.50	+0.75%	-16.04%
				대두	1,010.75	+0.42%	-1.41%
				커피	393.80	-0.28%	+36.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0월 16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